

2026년 4월 16일

Hana FX Daily Letter

출구 찾는 미국과 이란, 시장은 관망세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종전 협상 기대 속 위험선호 심리와 달러 약세에 하락**
daily range 예상: 1,470~1,480원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전면 충돌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완화됨. 종전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와 달러 약세 흐름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여기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 또한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임. 다만, 지 정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1,470원대에서 하단이 지지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또한,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관련 경계감도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전일 동향 : 15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7.0원 하락한 1,474.2원에 마감**
미-이란 협상 지속 기대감에 위험선호 심리 이어지면서 10.2원 내린 1,471.0원에 개장. 장중 유입된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에 하단 지지되며 1,47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다 정규장을 마칩.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추진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횡보 흐름을 보이며 1,475.5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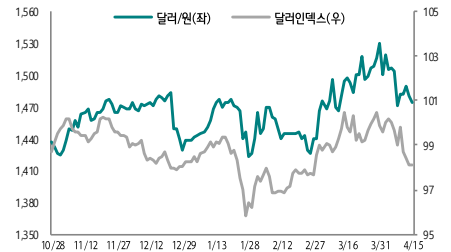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따른 종전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에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짐
- (유로-달러) ECB 관계자들이 신중한 기조를 보였으나,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임
- (달러-엔) 일본 재무상의 강력한 경고성 발언에도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하며 159엔대로 올라선 모습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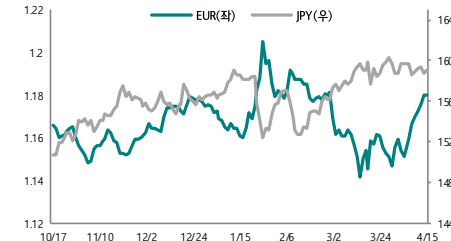
- 최근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역외시장의 영향력을 언급했음. 중동 사태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이 원화 변동성을 과도하게 증폭시켰다는 분석임.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 개장 시 전일 NDF 증가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역외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외환시장 24시간 개방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의 구조개선 노력은 우리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규모를 키워 체급 자체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선진적 금융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내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궁극적으로는 원화 변동성이 완화되어 환율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대외 리스크 속에서도 원화 가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원화의 국제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15:30 종가	02:00 종가	NDF
달러/원	1,471.0	1,474.2	1,475.5	1,474.5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801	159.00	6.8182
전일대비	+0.0005	+0.21	+0.0076
재정환율	1,739.54	927.14	216.21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1:00	중국 1분기 GDP성장률(YoY)	4.8%	4.5%
	중국 3월 산업생산(YoY)	5.8%	6.3%
	중국 3월 소매판매(YoY)	2.4%	2.8%
22:15	미국 3월 산업생산(MoM)	0.1%	0.2%

한은 총재 후보자의 환율 관련 발언

구분	주요 발언
환율 수준	최근 몇 달간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
원인 분석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교리가 움직임을 흔드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음
원인 분석	급격한 환율 변동에는 유동성 문제보다 한미 금리차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상황 진단	환율과 금융 불안이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달러 유동성 상황은 양호

자료: 언론 자료 종합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